

望神에 대한 연구

김용찬 · 강정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Visible Diagnosis of Spirit

Yong Chan Kim, Jung Soo Kang*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Physiology, Daejeon University

This study was written in order to help understanding of visible diagnosis of spirit(神). Visible diagnosis of spirit(神) is a very important factor of diagnosis and a first step of visible diagnosis. Spirit(神) is closely connection with appearance(形), so is revealed by appearance(形). If we make a visible diagnosis of spirit(神), we know the prosperousness of energy and the relative seriousness of an illness. Spirit(神) is understood by appearances and movements of patient, and influenced by seasons, lands, human's relationship and the grade of age. Visible diagnosis of spirit(神) is practiced by the observation of movements, appearances, languages, voices, mental condition, color, eye, etc. By visible diagnosis of spirit(神), we can conclud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spirit(神), discriminate true spirit(神) from false spirit(神), and diagnose mental diseases. As comparing spirit(神) with appearance(形), we can decide good or bad prognoses.

Key words : spirit(神), appearance(形), visible diagnosis

서 론

한의학에 있어서 진단은 생리·병리 등의 이론과 처방·침구 등의 임상을 결합시키는 교량이자, 의사와 환자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다. 진단함에 있어 의사가 보고서 아는 것을 神이라 하고, 듣고서 아는 것을 聽이라 하며, 물어서 아는 것을 工이라 하고, 脈을 잡고 아는 것을 巧라 하였으니 望聞問切의 四診 가운데 望診하는 의사를 神醫라 하여 으뜸으로 삼았고¹⁾, 『素問·八正神明論』에서는 “請言神 神乎神 耳不聞 目明 心開而志先 慧然獨悟 口弗能言 俱視獨見 適若昏 昭然獨明 若風吹云 故曰神”라 하여 구체적으로 望診을 하는 것을 神이라 하여 중시하였다.

形을 相함에 먼저 神을 얻어 主하라²⁾는 말이 있듯이, 形을 진단하기에 앞서 神을 진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神은 一身의 君主이고 인간의 모든 활동을 주재하고 조절하므로 神을 파악해야 인체를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神을 진단하는 방법은 대부분 望診 위주로 聞·問·切診의 일부가 포함된다. 神을 望診하는 望神은 주로 광의의 神에 대한 관찰을 의미하지만, 협의

개념으로서의 神志의 관찰을 포괄하기도 한다. 즉 환자의 의식상태와 일반적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望神이다.

精氣는 神의 물질적 기초이므로 神을 살피면 精氣의 성쇠와 병정의 경중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精氣가 충족하면 精神과 신체 모두가 강건하여 병에 걸려도 輕病이 되지만, 精氣가 虧虛할 경우에는 精神과 신체 모두가 쇠약해져서 重病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³⁾. 이렇듯 精氣의 盛衰 뿐만 아니라, 생명력의 強弱과 病情의 단계를 알 수 있으므로 正邪투쟁의 추세를 분석하여 예후의吉凶을 알 수 있다.

望神이 望診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것임을 깨닫고 望神의 요소와 진단법에 대하여 醫書와 相書를 연관시켜 연구하던 중, 약간의 知見이 있어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神과 形의 관계

『梁書·范縝·神滅論』를 보면 神은 곧 形이고, 形은 곧 神이므

* 교신저자 : 강정수,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omdkjs@dju.ac.kr, · Tel : 042-280-2617

· 접수 : 2004/05/20 · 수정 : 2004/06/18 · 채택 : 2004/07/19

1)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일증사, 1992, p. 109.

2) 陳淡梵, 相理衡真, p. 251.

3) 李鳳教·朴英培·金泰熙 編著, 漢方診斷學(3판), 서울, 성보사, 1992, pp. 43-44.

로 神과 형체는 잠시도 분리할 수 없고 생명이 있는 한 神이 존재한다고 하였다⁴⁾. 『靈樞·天年』의 “血氣已和 營衛已通 五臟已成 神氣舍心 魂魄畢具 乃成爲人”, “百歲五臟皆虛 神氣皆去 形骸獨居而終矣⁵⁾”라 한 것, 『靈樞·本藏』에 “人之血氣精神者 所以奉生而周於性命者也⁶⁾”라 한 것이 모두 身形一體의 원칙을 설명한 말이다⁷⁾. 神의 구체적 현상은 생명의 활동현상과 합쳐져서 나타나고, 神의 성쇠는 體形과 건강상태의 중요한 지표이므로, 진단할 때에는 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形은 血을 기르고, 血은 氣를 기르며, 氣는 神을 기르므로 形이 완전하면 血이 완전하고, 血이 완전하면 氣가 완전하며, 氣가 완전하면 神이 완전하고, 神이 완전하면 精이 왕성하다. 精이 實하고 氣가 굳건하면 神이 편안하고, 血이 마르고 氣가 흠어지면 神이 亡한다⁸⁾. 이렇듯 形은 氣血精을 통하여 神과 연관되므로 形을 통하여 神을 알 수 있고, 神을 통하여 形을 관찰할 수 있다.

『貫子·內業』에서는 마음의 상태는 반드시 모습이나 색 등으로 나타내게 된다고 하였고⁹⁾, 『內經知要』에서는 精明은 눈에서 드러나고 五色은 얼굴에서 드러나니 모두 氣의 華라고 하여 주로 神은 눈과 얼굴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하였고¹⁰⁾, 『素問·六節臟象論』에서는 心은 生의 근본이고 神이 머무르는 곳으로 그 외부적인 특징은 面部로 발현되어진다고 하였는데¹¹⁾, 이는 모두 神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근거가 된다.

精神은 윤택한 秀氣로 밝으면 心에 藏伏되고 낮에는 밝은 눈에 드러나며, 쓰면 밖으로 퍼지고 거두면 心에 숨는다¹²⁾. 神은 靜할 때는 心에 있다가 動하면 외부로 발현되어 활동하고, 경락계통과 氣血의 운행을 통해 장부의 기능활동을 조절하며, 또 耳目口鼻 등 五官과 기타 신체 각 부분의 기능활동을 주관한다. 따라서 神의 상태는 이들 각각의 상태를 살피으로써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一身의 동작과 周旋, 음식기거, 언어의 나아감과 물러섬, 보고 듣고 소리내고 숨쉬는 것으로도 나타나니 모두 하나로 합하여 판단한다¹³⁾.

이를 종합하여 보면 神은 인체의 동작이나 형태·반응능력·언어·성음·눈빛·얼굴색·脈·기타 여러가지 정신 증상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2. 望神

1) 望神시 고려할 점

(1) 天時·地理·人事

人은 天地의 사이에 살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天時·地理·人事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望神

함에 있어서도 이를 유념해야 한다. 精神은 天時의 寒暑가 서로 침범하여 변천하고, 또한 水土의 清濁·厚薄·燥濕이 서로 섞이고 옮겨져서 변천하며, 人事의 喜怒哀樂이 熏蒸되어 바뀌므로 변천한다¹⁴⁾. 즉, 정신은 기상과 지역, 감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2) 老少에 따른 神의 특성

神은 나이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는데, 이는 그 연령별로 生長收藏에 따라 주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神機를 취하는데 있어 소년에는 영특함에서 취하고, 중년에는 왕성함에서 취하며, 노년은 소박함에서 취한다¹⁵⁾.

(3) 察神之要

丁¹⁶⁾은 神機·神光·神彩를 察神之要라 하여 望神의 요체가 된다고 하였다. 神機는 생명활동의 外在表現으로 察神의 요체이고, 神光은 곧 精神으로 神志를 관찰하는 중요한 내용이며, 神彩는 안면·피부·두발·目光 등에서 光彩의 有無이다.

2) 望神의 요소

(1) 動作·形態

『相理衡眞·陳希夷先生心相編』에서는 “心이라는 것은 貌의 뿌리로, 心을 살피면 善惡이 스스로 드러난다. 行이라는 것은 心의 表로, 行을 보면 禍福을 알 수 있다¹⁷⁾.”고 하였다. 貌는 형태를, 行은 동작을 나타내므로 형태와 동작으로 心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靈樞·本神』에서는 精神의 有無를 사람의 동작이나 형태를 살피으로써 알 수 있다고 하였고¹⁸⁾, 『望診遵經·身容望法提綱』에서는 體로 形을 말하고 態로 容을 말함에 그 사람의 體와 態를 관찰하면 병증이 밝아지고 病情이 드러나는데, 그 狀態를 말하는 것은 혹 實한 가운데 있고, 혹은 虛한 가운데에 있고, 혹은 앉고 눕는 동작 사이에서 드러나고, 혹은 皮肉筋骨의 사이에서 드러난다 하여¹⁹⁾ 형태와 동작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구체적으로 『素問·脈要精微論』에서는 웃을 추스리지 못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정신이 혼란하기 때문이고, 고개가 처지고 눈빛이 生氣가 없이 어두우면 이 또한 정신이 나가기 직전이라 하였다²⁰⁾. 이외에도 사람이나 불을 싫어하고, 쇠북소리를 들으면 괜찮는데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으면 화들짝 놀란다거나, 또 웃을 벗고 달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 노래를 부르거나 며칠동안 굶거나 담을 넘고 지붕에 오르거나²¹⁾, 문을 꼭 닫고 혼자 방에만 있으려 하는²²⁾ 등의 여러가지 비정상적인 행동들에 대한 언급이 보이는데, 이것은 모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14) 陳淡坐, 相理衡眞, p. 276-277.

15) 김의철, 觀相高典, 서울, 동방인, 1999, p. 342.

16)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pp. 68-69.

17) 陳淡坐, 相理衡眞, p. 27.

1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68. “察觀病人之態 以知精神魂魄之存亡 得失之意”

19) 汪宏 著 /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의 譯, 望診遵經, 서울, 木과 土, 2000, pp. 242-244.

20)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57. “衣被不斂 言語善惡 不避親疏者 此神明之亂也.” “頭者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21)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14. “素問·陽明脈解” “病甚則棄衣而走 登高而歌 或至不食數日 逾垣上屋 所上之處”

2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36. “素問·刺瘰” “足少陰之瘰 … 令人嘔吐甚 … 欲閉戶牖而處”

4)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 57.

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41.

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13.

7) 黃義完, 東醫精神醫學, 부산, 현대의학서적사, 1987, p. 54.

8) 陳淡坐, 相理衡眞, p. 275.

9) 漢文大系21 管子集註(卷十六), 東京, 富山房發行, 1984, pp. 6-7. “全心在中 不可蔽匿 和於形容 見於青色”

10) 李仲梓, 內經知要, 中國, 新文豐出版公司, p. 25.

11) 金光浩,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顔面望診에 對한 研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31.

12) 陳淡坐, 相理衡眞, p. 275.

13) 秦順安, 神相鐵關刀, p. 36.

기인한 것이다.

『黃帝內經研究大成』에서는 神이 형체나 或은 자태 등에 있다는 표현으로 神態라고 하였다. 정상적으로 有神한 자의 神態는 形體는 充盛하고 肌肉은 건장하며 體態는 自如하고 동작은 영민하지만, 神氣가 虛弱한 자의 神態는 항상 肌肉은 거칠고 늘어지고 수족은 무력하며 쉽게 피로하고 목소리가 낮고 의욕없는 말을 하며, 몸은 약하고 마르고, 동작은 느리니, 이를 失神의 態라 하였다. 『素問·玉機真藏論』에는 형체의 盛衰·豐瘦에 근거하여 질병의 길흉을 예측한다고 하였다. 腎은 骨을 주하므로 大骨이 枯槁하면 腎精은 이미 絶했다고 하고, 脾는 肉을 주하므로 破肌脫肉하면 脾氣는 이미 敗했다고 하며, 目匡陷하고 眞臟脈이 나타나면 五臟의 元眞之氣가 耗竭했으므로 神識이 맑지 못하여 병정이 위중한 것은 모두 神을 본 것이다²³⁾.

『神相鐵關刀』에서는 동작과 형태에 따른 有神·無神에 대하여 “앉아 있을 때 허리가 꺾이면 無神이고, 앉은 것이 우뚝 솟은 산 같으면 有神이다. 서있을 때 다리가 한쪽으로 기대서면 無神이고, 서있는 것이 돌과 같이 단정하면 有神이다. …… 말을 하지 않을 때 눈썹이 가로막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無神이요, 들을 때 귀머거리같고 어수선하면 無神이요, 볼 때 흐릿하고 밝지 못한 것은 無神이다. 움직일 때 머리는 기울고 몸은 흐느적하며, 말이 울리거나 맑지 않고, 위엄은 發揚하지 않으며, 밥을 먹음에 너무 늦거나 너무 빠르고, 마심에 흐르듯이 하거나 힘든 듯 하며, 자지 않는데도 코에서 숨소리가 나고, 말을 하지 않는데도 입이 항상 숨을 쉬며, 다리를 흔들고 손을 떨며, 잘 때는 천정을 보고 걸어나갈 때는 구부리는 이 모든 것이 神이 不足한 것을 이름이다²⁴⁾.”라고 하였다. 수면의 상태에서도 有神·無神을 변별할 수 있다. 잠을 조금 자는 자는 神이 맑고 貴하고, 많이 자는 자는 神이 濁하고 賤하다. 잠자는데 편안하지 않으면 心神에 손상이 있는 것이며, 잠자는 중에 어지러운 말을 하면 心이 혼잡한 것이 그치지 않는 것이다²⁵⁾.

(2) 言語·聲音

혓은 心의 竅이고 말은 心의 소리이므로²⁶⁾, 혀와 말로써 心을 알 수 있다. 혀는 五臟의 精華로 생한 것으로, 紅赤한 색은 心에 근본한 것이고, 剛柔한 性은 肝에 근본한 것이며, 맛을 살피고 아는 것은 脾에 근본한 것이고, 목소리를 滋潤하는 것은 肺에 근본한 것이며, 흐름에 液을 적시는 것은 腎에 근본한 것이므로 그 氣에 근본하여 통하고, 精에 통섭하며, 神에 변하는 것이므로²⁷⁾ 五臟이 조화되어야만 혀가 제대로 갖춰져 발휘될 수 있으므로 혀의 상태와 말로써 五臟을 진단할 수 있다. 또한, 사람의 말은 氣實하고 神이 조화되는 것이 貴하니, 神이 조화되면 말에 뜻이 있으므로 언어의 뜻으로도 神의 有無를 변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素問·脈要精微論』에 “言而微 終日乃言復言者 此奪氣也. 衣被不斂 言語善惡 不避親疏者 此神明之亂也.”라 하였

고, 『靈樞·癲狂』에 “狂言 驚 善笑 好歌樂 妄行不休者 得之大恐²⁸⁾.”이라고 하였으며, 또 『素問·陰陽類論』에 “罵詈妄行 巔疾爲狂”이라고 하였고, 『素問·評熱病論』에서는 “狂言者是失志 失志者死²⁹⁾”라 하였는데, 이를 따르면, 『內經』은 鄭聲·譫語·狂言 등 증상을 心神이 안정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³⁰⁾. 말의 斷續에서도 神을 볼 수 있으나, 말할 때 끊어졌다 이어지고 슬프며 목이 메이는 것은 無神이고, 말하는 것이 큰 종과 같고 음률이 각각 조화되면 有神이다³¹⁾. 사람이 지나치게 근심하거나 갑자기 분노하면 말을 못할 수도 있다. 소리를 내는 舌骨은 神氣에 의해 작동되는데³²⁾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나 또는 邪氣의 침입으로 인해 神氣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히 舌骨을 조절하지 못하게 되므로 소리를 내지 못하거나 같은 소리를 반복하게 된다. 이러한 예들이 모두 언어나 성음이 心神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精神症狀

神旺한 사람은 神志가 맑고, 생각에 질서가 있으며, 언어가 맑고, 반응이 민첩하며, 표정이 자연스럽고, 神態가 안정되고 和하다. 神氣가 부족한 사람은 항상 정신이 떨쳐지지 않고, 건망증이 있으며, 잠자기 좋아하고, 목소리는 낮고 의욕없는 말을 한다. 표정이 움직이지 않고 神昏譫語하며 말에 윤리가 없으면 이는 失神이다³³⁾.

『內經』은 神이 손상되면 여러가지 정신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예컨대, 『靈樞·本神』에서 “心忪惕思慮 則傷神 神傷則恐懼自失”, “肝悲哀動中 則傷魂 魂傷則狂忘不精”, “肺喜樂無極 則傷魄 魄傷則狂 狂者意不存”, “腎盛怒而不止 則傷志 志傷則喜忘 其前言³⁴⁾”이라고 하여, 五臟情志의 활동이 과도하면 神을 傷하게 되며, 神이 傷하면 두려워하거나 미치거나 또는 전에 했던 말을 자주 잊어먹는 등의 정신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靈樞·癲狂』에서는 정신이 손상되어 발생하는 狂症의 구체적인 증상들을 열거하였는데, 예를 들면 “狂始發 少臥不饑 自高賢也 自辯智也 自尊貴也 善罵詈 日夜不休”, “狂始生 先自悲也 喜忘苦怒善恐者 得之憂饑”, “狂者多食 善見鬼神 善笑而不發於外者 得之有所大喜³⁵⁾”라고 하였다. 또 『內經』에서는 神이 손상되면 급격한 감정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하였다. 예컨대 『素問·調經論』에서는 “神有餘則笑不休 不足則悲”라고 하여, 神이 온전하지 못하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

葉天士는 癡疹은 모두 邪氣가 걸로 들어난 것이라 하여 정신이 맑으면 안팎이 모두 풀리는 것이지만, 神昏하면 정기가 사기를 이기지 못하여 사기가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胃津이 마른 것이라고 하여 神清과 神昏으로 癡疹의 逆順관단을 하였다.

2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34.

2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23.

30) 丁啟炫, 神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p. 70.

31) 秦愼安, 神相鐵關刀, p. 36.

32)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295. “靈樞·憂志無言: “人之卒然憂志 而言無音者”, “橫骨者 神氣所使主發舌者也”

33)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북경, 北京出版社, 1999, p. 1290.

3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68.

3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34.

23)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북경, 北京出版社, 1999, p. 1291.

“大骨枯槁 大肉陷下 胸中氣滿 喘息不便 其氣動形 期六月死. ……破肌脫肉 目匡陷 眞臟見 目不見人 立死 其見人者 至其所不勝之時則死”

24) 秦愼安, 神相鐵關刀, pp. 36-37.

25) 陳淡堃, 相理衡眞, p. 262.

26) 陳淡堃, 相理衡眞, p. 254.

27) 陳淡堃, 相理衡眞, pp. 222-223.

또한 췌분이 熱을 받으면 혈액이 劫을 받으므로 心神이 不定해져서 밤이 깊어도 자지 못하는 熱入血營의 증상은 心神의 變化라고 설명하였고, 神情이 돌아오는 변화로 精氣의 存亡을 判斷하여 生死吉凶을 예측하였다.

吳鞠通은 三焦辨證 가운데 神情의 변화에 대하여 중시하였다. 病이 上·中·下焦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 막론하고 단지 神昏하면 危證이 된다고 하고, 아울러 煩躁不安·心中懊懣·起臥不寧하고 심하면 反覆顛倒·譫語發狂 등의 神情의 이상 증상이 출현하는 것을 邪氣가 인체를 손상한 정도라 하여 병의 輕重을 살폈다. 『四診抉微』에서는 神氣의 存亡으로 여러 종류의 失神이나 或 神情 이상의 증상을 표현한 후, 神은 死生の 本이므로 살피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³⁶⁾.

(4) 色

心은 脈에 합하고 그 영화는 色에 나타난다³⁷⁾ 色은 神의 표시로 神이 왕성하면 色도 왕성하고 神이 쇠약하면 色도 쇠약해지며 神이 간직되면 色도 간직되고 神이 드러나면 色도 드러난다³⁸⁾. 色이라는 것은 氣의 精華이고 神의 胎息이다. 神이 色과 더 붙어 들이면, 神은 氣에 머물 수 있고, 氣는 色에 머문다. 臟腑는 이에 氣色의 根本이고, 氣色은 臟腑의 枝葉이 된다. 근본이 굳으면 지엽은 번성하지만, 근본이 마르면 지엽은 떨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³⁹⁾. 이에 따르면 色은 神과 氣를 반영하고 이는 臟腑에 근원하니, 色·神·氣와 臟腑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心神은 經脈을 통해 흐르는 기혈을 조절함으로써 인체의 생명활동을 주재하는데, 인체의 色과 脈은 氣血의 상태를 반영한 것이므로, 心神의 변화는 곧바로 色과 脈으로 드러나게 된다. 『素問·五藏生成』의 “血氣者 人之神也”, “心之合脈也 其榮色也”는 모두 色과 脈을 정신의 직접적인 외현이라고 설명해주는 말이다. 察色의 妙는 察神함에 있다. 血은 氣를 기르고 氣는 神을 기르니 병이 들면 交病하고, 잠을 못 잔 사람은 神에 배고픈 色이 있고 喪亡한 자는 神에 낫한 色이 있다. 氣가 스스로 神에 묶여 기르는 바를 잃은 것이다⁴⁰⁾. 특히, 色 중에 顏色을 중시하였다. 인체의 모든 經脈이 얼굴에 모이므로 얼굴에는 氣血이 가득하게 되고, 이러한 氣血은 모두 心神의 外顯이므로 얼굴에 나타나는 色을 보고 心神의 상태를 알 수 있다. 顏色 이외에도 脣·爪·髮·外皮 등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색택상태를 관찰하였다.

有神의 色은 顏色이 선명하니 드러나지 않고 광택이 柔潤하다. 『素問·五藏生成論』에서는 縞로 감싼 듯한 色이 드러나는 것이 五臟의 영화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 縞는 일종의 質薄하고 色白한 직물로, 縞로 감싸진 五色은 정상적인 有神의 色에 榮潤과 生氣가 풍부하게 있다. 혹 色이 枯槁하고 晦暗하거나 或 선명한 색이 暴露된 것은 失神의 象이다⁴¹⁾. 色이 어둡더라도

도 神이 있으면 病이 중하더라도 살고, 色이 밝더라도 神이 없으면 病이 없더라도 죽는다. 色의 黃과 明으로 神의 유무를 구별하니, 色이 黃하고 광채가 있으며 皮毛내에서 은은하게 감춰져 있으면 神이 있는 것이다⁴²⁾. 이와 같이 色을 통한 神의 有無는 明潤含蓄의 여부로 살핀다.

(5) 眼目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였고, 一身 精華의 門戶라 하였으며, 『陰符經』에서는 기들은 눈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모두 神은 눈에서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 눈에 나타나는 神을 보기 위해서는 관찰자도 神이足해야 하므로 『風鑑』에서 가슴에 만가지 상이 늘어섰으니 心은 맑은 보배로운 거울이라 눈이 밝으면 바로 흐로 사람의 마음을 꿰뚫을 수 있고, 神이 足하면 사람의 神을 비출 수 있다고 하였다⁴³⁾. 이처럼 神으로 神을 보는 것이다. 目的 활동은 心神의 지배를 받고, 目的 기능은 五臟六腑의 精氣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⁴⁴⁾, 心은 五臟의 精을 전담하는데 눈이 그 竅가 되고⁴⁵⁾, 모든 脈은 모두 눈에 속하므로⁴⁶⁾ 눈에서 神을 살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神을 바르게 살피려면 환자의 눈을 보고, 그 神을 다스리면 氣가 쉽게 行한다고 하였으니⁴⁷⁾ 望神時에는 마땅히 察目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眼神의 有無에 있어서 두 눈이 원활하면 有神이고, 눈에 빛이 없으면 無神이다⁴⁸⁾. 두 눈에 神彩가 內含되어 있고 반응이 靈敏하고, 目光이炯炯하여 정확하게 주위의 사물의 黑白·長短 등을 변별할 수 있는 것은 神이 있는 표현이다. 반대로 目光이 어둡고 瞳仁이 呆滯하면 精神이 위약하여 반응이 느리고 둔하며, 사물의 黑白이 밝지 않게 보이고, 長短이 맑지 않으니 이는 失神한 象이다⁴⁹⁾. 눈에 눈곱이 있고 눈물이 있으며 精彩가 포함되면 有神한 것이고, 눈곱이 없고 눈물이 없으며 精彩가 없으면 無神이다⁵⁰⁾.

(6) 五官

『靈樞·五閱五使』에서 “五官者 五藏之閱也”, “鼻者 肺之官也. 目者 肝之官也. 口脣者 脾之官也. 舌者 心之官也. 耳者 腎之官也.” 라고 하여, 五官이 五藏의 精氣가 발현되는 곳이라 했는데, 『靈樞·邪客』에서 “心者 五藏六腑之大主”라고 하였으므로, 五官의 色澤

36)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1290.

3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9. 『素問·五藏生成』 “心之合脈也 其榮色也”

38)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p. 1290 1291. 『醫門法律』 “色者 神之旗也 身旺則色旺 神衰則色衰 神藏則色藏 神露則色露”

39) 陳淡堃, 相理衡真, pp. 278 280.

40) 喻昌, 醫門法律(中國醫學大成叢集 2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p. 11. “所以察色之妙 全在察神 血以養氣 氣以養神 病則交病 失睡之人 神有饑色 喪亡之子 神有呆色 氣索自神失所養耳”

41)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p. 1290-1291. “生於心 如以縞裏朱 生於肺 如以縞裏紅 生於肝 如以縞裏紺 生於脾 如以縞裏括蕒實 生於腎 如以縞裏紫 此五臟所生之外榮也”

42) 배오성, 국역 석실비록, 서울, 서원당, 2000, p. 397.

43) 陳淡堃, 相理衡真, p. 59.

44)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42. 『靈樞·大惑論』 “目者, 心之使也”, “精之窠爲眼, 骨之精爲瞳子, 筋之精爲黑眼, 血之精爲絡, 其窠氣之精爲白眼, 肌肉之精爲約束, 裏極筋骨血氣之精, 而與脈并爲系 …… 目者, 五臟六腑之精也, 營衛魂魄之所常營也, 神氣之所生也”

4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24. 『素問·解精微論』 “夫心者 五臟之專精也 目者 其竅也”

46)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39. 『素問·五藏生成』 “諸脈者皆屬於目”

47)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93. 『素問·鍼解』 “必正其神者 欲瞻病人目 制其神 令氣易行也”

48) 汪宏 著 /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譯, 望診遵經, 서울, 木과 土, 2000, p. 109. “明則神氣充足 暗則神氣虧虛”

49)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1290.

50) 李鳳教·朴英培·金泰熙 編著, 漢方診斷學(3판), 서울, 성보사, 1992, p. 44. “人之神氣 棲於兩目 …… 目有眵有泪 精彩內含者 爲有神氣. 無眵無泪 白珠色藍 烏珠色滯 精彩內奪 及浮光外露者 皆爲無神氣”

을 살핌으로써 心神의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⁵¹⁾.

3. 望神의 分別

1) 有神

得神者는 昌하고 失神者는 亡한다. 神의 有無는 死生의 本이므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形證으로 말한다면 目光에 精彩가 있고, 言語가 淸亮하며, 神思가 不亂하며, 肌肉이 不削하고, 氣息이 如常하며, 大小便이 不脫하면 이와 같은 자는 비록 그 脈에 의심이 있더라도 오히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 形의 神이 있는 것이다.

有神은 일명 得神이라고도 한다. 精充神旺의 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또한 病에 걸렸으나 精氣가 아직 쇠하지 아니한 輕病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有神은 神志分明·兩目精彩·呼吸平穩·言語明瞭·面色榮潤·肌肉不削·動作泰然·反應敏活 등으로 나타난다. 心藏神하고 그 영화는 얼굴에 있으므로 神志와 言語가 淸명한 것과 안면에 광택이 있는 것은 心의 精氣가 充足한 것이고, 肝은 눈에 開竅하고 筋을 主하고, 腎은 藏精하고 骨을 主하므로 두 눈의 精彩와 동작이 태연한 것은 肝腎의 精氣가 충족한 것이며, 肺는 氣를 主하고 호흡을 하게 하므로 呼吸이 平穩하다는 것은 肺의 精氣가 충족한 것이고, 脾는 肌肉을 主하므로 肌肉이 不削한 것은 脾의 精氣가 충족한 것이다. 이처럼 장부의 精氣가 充足하면 정신과 신체가 건강해지고 병에 걸린다 해도 輕病이므로 '精全則身旺 血盛則形強'이라고 한다⁵²⁾.

相理衡眞·精神論에서는 神이 有餘한 자는 眼光이 맑고 빛나며, 뒤돌아봄에 기울지 않고, 눈썹이 빼어나고 길며, 精神이 우뚝 솟아 움직이고, 얼굴 色은 맑고 맑으며, 행동거지는 점잖고, 엄숙하게 멀리 보면 가을달이 서리가 내리는 밤의 하늘을 비추는 것 같고, 뛰어난 것을 가까이에서 보면 和風이 봄꽃을 움직이는 것 같으며, 일에 임한 剛毅는 猛獸가 깊은 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光彩가 멀어 아득한 것은 丹鳳이 구름길을 나는 것 같다. 그 앓은 것은 한정된 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고, 그 누운 것은 까마귀가 깃들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으며, 그 행하는 것은 세차게 흘러 보통의 물이 흐르는 것 같고, 그 서있는 것은 자부함이 외로운 봉우리가 우뚝 솟은 것 같으며, 말은 妄發하지 않고, 성은 망령되지 조급하지 않으며, 喜怒에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榮辱에 그 잡은 것을 바꾸지 않으며, 갖은 태도로 앞에서 뒤 섞여도 마음은 항상 한결같으면 곧 이를 일러 神이 有餘하다고 한다. 神이 有餘한 자는 모두 上貴의 사람으로, 凶災가 그 몸에 들어오기 어렵고 영원히 福祿을 보전한다⁵³⁾고 하였다.

2) 無神

無神은 일명 失神이라고도 하며, 精虛神衰의 병리적 표현이다. 無神은 精神萎靡·兩目晦暗·呼吸氣微或喘促·面無光澤·肌肉瘦削動作困難·反應遲鈍 甚則神昏譫語·循衣摸床·撮空理線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正氣가 크게 손상되고 精氣가 虧虛하며 病이 重症에 속한다. 환자의 정신상태가 위축되고 面色이 無華한 것은 心의 精氣가 쇠약한 것이고, 두 눈이 어둡고 동작이 곤란한 것은

肝腎의 精氣가 쇠약한 것이며, 호흡이 미약하고 혹은 촉급한 것은 肺의 精氣가 쇠약한 것이고, 肌肉이 瘦削한 것은 脾의 精氣가 쇠약한 것이다. 만약 환자가 神昏譫語하거나, 옷을 매만지고 침상을 더듬거나, 허공을 잡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邪氣가 心包로 下陷했거나 精氣가 已脫된 危證이다⁵⁴⁾.

그 밖에 形이 마르고 色이 敗하고, 泄瀉가 그치지 않으며, 或 嘔에 大肉이 이미 脫하거나, 或 病이 없이 허공에서 鬼神을 보거나, 或 脹滿의 病이 補瀉가 모두 안되거나, 或 寒熱의 病에 溫涼이 모두 쓸모없거나, 或 갑자기 暴病하여 沈微煩躁昏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거나, 或 일시적으로 혼도하여 眼閉·口開·手撒·遺尿하는 등의 이러한 사람은 비록 脈에 凶候가 없더라도 반드시 죽을 것임을 의심하지 않으니 그 形의 神이 去한 것이다⁵⁵⁾.

神을 진단에 구체적으로 활용하는 법은 張景岳이 시작하였으니, 『內經』의 精神과 임상경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환자의 형태·동작·面目的 표정·언어와 기식 등에 따른 精神의 示標를 세웠다⁵⁶⁾.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張仲景 察神 示標

觀察點	得神	失神
形色	形色如常 肌肉不削 面色明確 含蓄性 있음	形羸色敗 大肉消削 面色暗晦暴露
眼神	活動靈敏 精彩內含 炯炯有神	活動遲鈍 目無精彩 目睛迷迷
神志	不亂 言語動作如常	不清 言語動作喪失 (如暴病沈微燥躁 或循衣摸床)
呼吸	呼吸順調	呼吸異常

3) 假神

假神은 臟腑의 精氣가 衰竭하여 陰이 陽을 수렴하지 못하므로 陰陽이 장차 떨어져서 죽으려 하는 전조증이다⁵⁷⁾. 다시 말해 危境에 처해 있을 때 잠시 정신상태가 호전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면 久病·重病으로 인하여 精氣가 극도로 쇠갈해 있는 환자가 갑자기 神志淸·食慾增進·食不知飽·言語不休·想見親人·面色蒼白而兩顴泛紅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古人들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回光返照와 殘燈復明에 비유하였다. 갑자기 호전되는 증상만 보일 뿐 이미 陰陽이 離決되고 五臟의 精이 미약한 것이므로⁵⁸⁾ 精氣가 이미 끊어져서 오래 살지 못한다⁵⁹⁾. 임상에서 병을 진단하고 치료한 후, 病情이 호전되는 환자의 神과 假神은 구분해야 한다⁶⁰⁾.

4) 精神錯亂

이것은 癲·狂·癇 등에서 나타난다. 癲證은 憂思로 말미암아

51)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p. 72.
 52) 李鳳教·朴英培·金泰熙 編著, 漢方診斷學(3판), 서울, 성보사, 1992, p. 43.
 53) 陳謫菴, 相理衡眞, p. 276.

54) 李鳳教·朴英培·金泰熙 編著, 漢方診斷學(3판), 서울, 성보사, 1992, pp. 43-44.
 55) 林之翰, 四診抉微(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中), 北京, 華夏出版社, 1997, p. 738.
 56) 李文幸, 東醫診斷學(3판), 서울, 경인문화사, 1981, pp. 33-34.
 57)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1291.
 58)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17. 『素問·生氣通天論: "陰陽離決 精氣乃絕"
 59)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 57. 『素問·脈要精微論: "五臟精微象見矣 其壽不久也"
 60)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1291.
 61) 李鳳教·朴英培·金泰熙 編著, 漢方診斷學(3판), 서울, 성보사, 1992, p. 44.
 62)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pp. 66-68.

氣結痰凝하고 이것이 心竅를 阻閉하는 所致로서, 神志痴呆·舉止失常·低聲獨語·見人則止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陰證에 속한다. 狂證은 暴怒로 말미암아 氣鬱化火하고 痰火가 心神을 攪亂하는 所致로서, 狂躁不安·豪言亂語·甚則登高而歌·棄衣而走·打人毀物·不避親疎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陽證에 속한다. 癲證은 肝風이 挾風上逆하여 清竅를 阻閉한 所致로서, 突然昏倒·四肢抽搐·嘔吐涎沫·醒後如常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⁶¹⁾.

5) 形神의 상관관계⁶²⁾

(1) 形神兼備

外形이 健壯하고, 肌肉은 堅實하며, 몸은 균형이 잡히고, 面色은 紅潤하고 光澤이 있으며, 눈빛은 맑고 神이 있고, 精神은 가득하며, 體力은 충분하고, 毛髮은 윤택하고 빛나며, 動作은 영활하고, 反應은 민첩하다. 『素問·上古天真論』에서 말한 形與神俱의 상태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臟腑가 충실하고 기능이 완전하며, 氣血이 왕성하고, 邪氣에 쉽게 손상을 입지 않으며, 만일 病이 들더라도 쉽게 치료된다.

(2) 形盛神憊

形體는 충실하고 骨格은 거칠고 크지만, 神情은 위축되고, 눈빛은 어둡고 답답하고 無神하며, 얼굴은 초취하고 화색이 없고, 표정은 답답하며, 동작은 완만하고, 반응은 느리며, 언어는 낮고 미약하고, 움직이면 氣短하다. 이와 같은 환자는 正氣는 이미 衰하고 邪氣는 비교적 盛한 것으로, 치료가 비교적 어렵고 예후도 크게 좋지는 못하다.

(3) 形羸神充

久病患者이고, 형체가 마르고 약하며, 기육이 瘦削하고, 언어는 맑고 유력하며, 호흡은 거칠고 소리가 있고, 눈빛은 神이 있으며, 정신은 오히려 좋으나 或 이상한 항진상태이다. 이와 같은 환자는 陰血이 虧損되고 邪氣는 充盛하여 그 病이 또한 逆症에 속한 것으로 치료는 비교적 어렵고 예후는 시간이 걸리며 좋다고 할 수 없다.

(4) 形神俱衰

形體는 瘦削하고 羸弱하고, 精神은 위축되고, 얼굴은 초취하고, 표정은 답답하며, 모발은 건조하고, 눈빛은 어둡고 답답하고 無神하며, 언어는 낮고 미약하고, 동작은 나태하다. 이와 같은 환자는 陰陽氣血이 모두 虛한 것으로, 병정도 비교적 오래된 것이고 豫候도 不良하다.

결 론

望神에 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神은 인체를 주재하고 조절하는데 神과 形은 一體이고 神은 形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望神을 통하여 환자의 精

氣의 盛衰와 病程의 輕重을 이해할 수 있다. 神은 形貌·動態 등으로 파악되지만, 天時·地理·人事의 영향을 받고 老少의 나이에 따라 主하는 바가 다르다. 望神은 동작·형태·언어·성음·정신증상·색·눈·五官 등의 상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동작과 형태는 행동의 正否와 힘의 有無로, 언어와 성음은 말의 내용·斷續과 성음의 有無力과 清濁으로, 정신증상은 정신의 상태로, 색은 명암과 윤택으로, 눈은 청탁·명암·흑백·동정으로, 五官은 색택으로 神의 有無를 살핀다.

이러한 요소들로 환자의 有神과 無神을 판단하고, 假神을 변별하며, 精神錯亂을 진단한다. 이 形과 神을 비교함으로써 환자의 生死 및 예후를 판단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凌耀星, 難經校注, 서울, 일증사, 1992.
2. 陳淡堃, 相理衡真.
3. 李鳳教·朴英培·金泰熙 編著, 漢方診斷學(3판), 서울, 성보사, 1992.
4.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文化社, 1991.
5.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6. 黃義完, 東醫精神醫學, 부산, 현대의학서적사, 1987.
7. 李仲梓, 內經知要, 中國, 新文豐出版公司.
8. 金光浩, 時空合一의 觀點으로 살펴본 顏面望診에 對한 研究,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9. 秦慎安, 神相鐵關刀.
10. 張樹生·肖相如 主編, 中華醫學望診大全, 山西, 山西科學技術出版社, 1994.
11. 김의철, 觀相高典, 서울, 동반인, 1999.
12. 汪宏 著 /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제7기 졸업준비위원회 譯, 望診遵經, 서울, 木과 土, 2000.
13. 洪元植,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14. 王洪圖 總主編, 黃帝內經研究大成, 북경, 北京出版社, 1999.
15. 丁彰炫, 神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16. 喻昌, 醫門法律(中國醫學大成續集 23),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17. 배오성, 국역 석실비록, 서울, 서원당, 2000.
18. 林之翰, 四診抉微(醫經病源診法名著集成 中), 北京, 華夏出版社, 1997.
19. 李文宰, 東醫診斷學(3판), 서울, 경원문화사, 1981.